

## SG한국삼공, 'ET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대상 장관 표창 수여



SG한국삼공(주)(대표이사 한태원)은 지난 10월 13일 새로운 제형의 초간편 논잡초약인 'ET제'(풀다벤·이티 DT)의 개발 및 보급의 공로를 인정받아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대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표창을 수여 받았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대상은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실용성 있는 기술개발 및 확산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국민의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한 연구자 및 산업체를 발굴·포상하는 상이다.

'풀다벤·이티'는 SG한국삼공의 특허받은 자체개발 기술이 담겨있는 2cm의 초간편 중기 논잡초약으로 편리성은 물론, 부유성과 확산성, 그리고 높은 약해 안전성을 겸비하고 있다. 고령화되어 가는 농업인을 위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약제로 기존 3,000g/10a를 사용하던 것을 250g/10a로 사용량을 혁신적으로 줄여 여성 및 노령의 농업인도 눈독에서 간편하게 살포 할 수 있다

또한, "‘풀다벤·이티'는 출시 이후 저항성잡초(올챙이고랭이, 물달개비 등)에 대한 우수한 효과를 인정받아 농가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 농과원, 농약 등록시험 선진화 위한 연구소장 간담회 개최

10.19 라마다호텔서, 농약 등록시험 선진화 및 거버넌스 구축 위해

농약 등록시험의 선진화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농약등록시험 관련 연구소장 초청 간담회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과장 박재음) 주최로 지난 10월 19일 라마다 프라자 수원호텔 세미나룸에서 개최됐다.

농약회사 및 민간 연구소 소장을 비롯, 농자재평가과 및 작물보호협회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재음과장의 전반적인 농약 평가업무 현황 소개를 시작으로 이화학, 생물활성, 잔류 및 독성 등 분야별로 농약등록시험 선진화 추진방안에 대한 각 실장들의 세부적인 발표가 이어졌다.

끝으로 홍무기 농산물안전성부장 주재로 열린 협력



방안 토의에서 일선 연구소장들은 신규 농약 등록 및 재등록 시험, 평가에 관한 다양한 질의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건의를 통해 어려운 산업계에 힘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 응답시간을 가져 유익했다는 평이다.

## 동방아그로, '알리세' 경품대축제 추첨 행사 개최



(주)동방아그로(대표이사 염병만)는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월 13일 나방전문방제약제인 '알리세 입상수화제' 구매고객의 경품대축제 추첨행사를 서울 본사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경품행사는 알리세 입상수화제 제품 구입시 제공된 응모엽서를 통해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전국에서 8,008명이 응모하여 사용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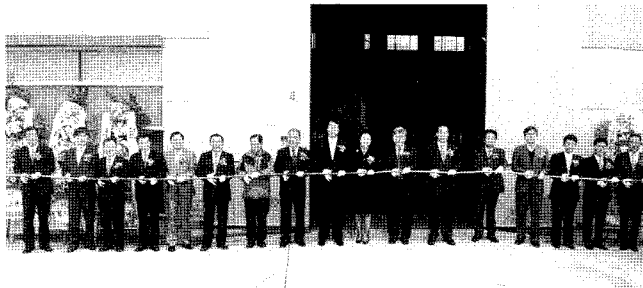
추첨행사에는 농업전문지 기자단과 내부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1차추첨을 통해 400명의 당첨자를 선발한 후, 2차 추첨에서 1~4등까지 선발했다.

1등 경운기 당첨자는 전라남도 곡성군의 전명희씨이며, 2등 LCD TV 당첨자는 경기도 이천시의 장진순, 충청남도 서산시의 정병학씨에게 행운이 돌아갔다. 3등, 4등, 5등은 각각 10명, 20명, 367명으로 당첨자는 10월 17일부터 동방아그로 홈페이지([www.dongbangagro.co.kr](http://www.dongbangagro.co.kr))에서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동방아그로측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벤트를 통해 친근하고 대한민국 농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 아그리젠토, 제조공장 준공식 가져

(주)아진케미칼(대표이사 진남수)의 자회사인 아그리젠토(주)가 지난 11월 8일 경남 거창의 석강농공단지 내에서 첨단 농업 제제 생산을 위한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전을 기원했다. 아울러 그동안 아그리젠토(주)의 설비를 담당해서 안전하게 공사를 마쳐 준 4곳의 회사에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에 준공된 제조

이날 준공식에는 농업 유관기관과 군내 관련기관, 농자재 관련업체와 전국의 지사, 대리점, 농업인 등 약 3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진남수 대표이사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김성택 거창군 부군수, 류영수 군의회 부의장, 정원호 작물보호제판매협회장, 조상학 작물보호협회 상무 등이 축사를 통해 아그리젠토(주)의 무궁한 발

공장규모는 대지 6,678㎡ 중 공장 1,345㎡, 사무실 및 연구소 등의 각종 건물 3,307㎡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화(용)제, 분제, 입제, 액상수화제, 입상수화(용)제, 선택성유·액제, 비선택성유·액제의 설비를 구축해 모든 화학농약 제형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친환경 공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이들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도 갖추었다.

## 바이엘, 작물보호제 전문매장 오픈

경북 김천시 평화동 김부자 농약사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사장 하랄드 프린츠)는 지난 10월 10일 국내 최초 작물보호제 전문매장 1호점을 경북 김천시 평화동에 위치한 '김부자 농약사'에서 오픈식을 가졌다.

바이엘크롭사이언스 3년전부터 이미 각 선진국에서 많은 성공사례를 가진 작물보호제 전문매장의 개념을 도입하여, 꾸준히 고객들을 교육과 매장의 현대화 전문화 활

동을 하여 왔으며, 이번에 마침내 국내 최초의 작물보호제 전문매장을 오픈 하기에 이르렀다.

김부자농약사 김대근 사장은 "차별화된 전문 매장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물건을 팔고, 고객을 상대하는 목적이 아니라, 작물보호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자리 매김을 하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며 "매장의 변화가 작물보호제 시장에 변화의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라고 말했다

이번 작물보호제 전문매장 오픈을 추진한 바이엘의 김중식 부장은 "바이엘이 도입한 전문매장의 개념은 농업인들 스스로가 작물의 병해충을 알고, 또 전문매장을 방문하여 정확한 병해충 진단과 많은 정보를 얻으며, 진열된 제품의 특성을 파악하고, 직접 작물에 가장 안전하고, 품질향상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일종의 작물 병원, 작물 약국의 개념이다" 라며 "향후 전문매장은 작물병원, 작물클리닉과 같은 매장으로의 변환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농업산업의 현대화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바이엘, 2011 전직원 단합대회 개최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대표이사 하랄드 프린츠)가 지난 10월 20~21일 양일간 경북 영양과 강원 태백에서 전직원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 첫째날에는 특별히 영양고추유통공사 제조공장 방문하여 푸드체인파트너십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주요 농가 및 농협 임원을 초대하여 한국 농업의 발전과 바이엘크롭사이언스의 전략적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둘째날 태백에서 하랄드 프린츠 대표이사는 가치에 기초한 향후 전략적 중점과제를 발표하였으며, 'BCS'



s Got Talent!' 및 팀빌딩 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그 동안 서로 알지 못했던 직원들의 숨겨진 재능을 보여주고 팀워크를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 유원에코사이언스, 작물보호제시장 본격 진출

유원에코사이언스 (주)(대표이사 심재영)는 지난 11월 18일 서울대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에서 2012년부터 작물보호제시장에 본격적 진출을 위한 발대식 및 전국 지사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서 심재영 대표이사는 "제2의 창업 정신으로 그간 보여준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인 작물보호제 전문회사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동안 산림용, 수간주사제, 골프장 약제 및 조경용 비료를 판매하여 왔던 유원에코사이언스는 향후 전국 9개 지사를 통해 작물보호제와 친환경 농자재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 농약생물활성연구회, 총회 및 연구발표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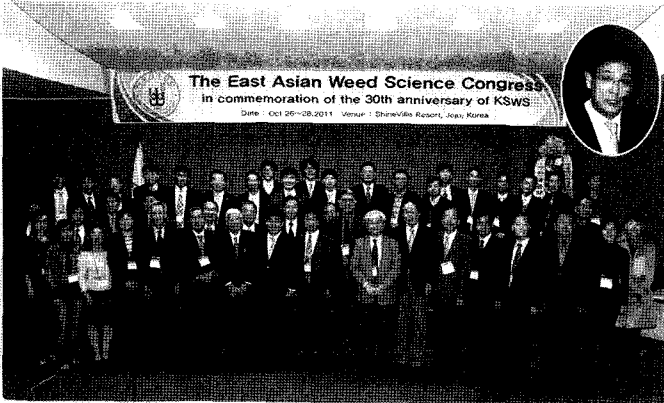
농약생물활성연구회(회장 정창국) 2011정기총회 및 연구발표회가 지난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무창포 비체펠리스에서 성료됐다.

농과원 및 업계, 시험연구기관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날 발표회에서는 정기총회에 이어 모두 5편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1부 강연(좌장 : 박재음 과장)에서는 △식물병의 이해, 벼 주요병 발생생태 및 약효실험(나동수 박사, 농과원)과 △약효·약해등록시험의 합리적 수행에 대한 고찰(이근식 부장, 바이엘) 발표가 있었으며, 2부(좌장 : 유용만 교수)에서는 △농작물에서 발생하는 최근 돌발해충(이관석 박사, 농과원)과 △온난화에 따른 제주 지역 아열대 과수 및 병해충 연구(홍순영 박사, 제주도원) △식물 바이러스병(최홍수 박사, 농과원)등 3편의 발표가 있었다.

모두 8편의 발표가 이루어진 이날 일반강연 1부(좌장 : 황인천 소장)에서는 △노린재류의 특징과 사과에서의 효과검정 예비 시험법(손준기, 신젠타)을 비롯 △Propanil을 이용한 전북 김제지역 저항성 피 방제에 관한 연구(엄준원, 동방) △밀 잎집눈무늬병의 발생과 방제약제 선발(이은숙, 한국삼공) △Saflufenacil+Glyphosate SC의 과원잡초 약효시험(박용필, 영일)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2부(좌장 : 김태준 박사)에서는 △고구마순을 이용한 귤가루깍지벌레 사육 및 약효검정법(석희봉, 성보화학)을 비롯 △벼 담수직파벼 재배방법별 약효·약해 평가방법과 잡초발생(이계환, 경농) △작물보호제 혼용 시험법(방종렬, 바이엘) △Ametoctradin+Dimethomorph SC의 주요 난균류 병해에 대한 방제활성(엄대용, 동부한농)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 한국잡초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동아시아학회」 성료 10.26-28 제주도샤인빌리조트서, 제초제 저항성잡초 발생과 관리방안 제시



한국잡초학회(회장 정봉진)가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아심차게 준비한 「2011동아시아잡초학회 및 기념대회」가 성료됐다.

한국·중국·일본의 잡초연구자 약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 동안 제주도 샤인빌리조트에서 열린 금번 학회에서는 모두 17명의 초청연사가 강사로

나서 특별강연을 펼쳤으며 9건의 구두발표와 54건의 포스터 발표, 농진청 잡초연구실 소장 잡초표본 50점이 전시되는 등 양적 질적 측면에서 한 단계 진보했다는 평이다. 또 동아시아지역 3개국 잡초학회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제초제 저항성잡초의 발생과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국제공동연구 계획을 수립하는 등 한·중·일 및 미국의 잡초연구자들이 향후 인적 교류를 통한 연구기반 확대의 밑바탕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정봉진 회장(주)동부한농 작물보호사업담당 상무)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잡초학은 제초제 저항성 잡초, 유전자 변형작물의 유전형질 확산, 새로운 잡초의 유입 등의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이 같은 문제는 동아시아 지역의 공통적인 문제로 각국의 개별적인 노력 보다는 국제적인 공조를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회장은 또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잡초관련 연구가 가장 활발한 지역 중의 하나이며, 잡초학에 관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학회가 동아시아 지역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중추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회장단 회의에서는 동아시아잡초학회를 2년 주기로 정례화 하기로 합의하고 학회지를 통합 발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 보다 폭 넓은 연구교류를 목적으로 강소성 잡초학회와 MOU를 체결하는 등 어느 학회보다 소득이 적지 않았다. ⊕

## 인사

- (주)경농 △변상윤 마케팅부부장 · 마케팅기획팀장 △이진 영업부부장 △이경택 전주지점장 · 혁신지역단장 △최용석 수원지점장 △전중호 마케팅지원팀장 △이원희 예산지점장 △이창규 마케팅부부 제품등록팀장 △이용만 생산본부장 · 공장혁신팀장 △남승민 공작혁신팀 생산혁신B 부장 △윤석기 생산팀 생산A부장